

착각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

상담실 백종훈 차장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항목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관련 세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지 등의 사실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나가거나 사실과 다른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보다 완벽한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치기 쉽거나 틀리기 쉬운 공제항목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연도 중에 결혼하고 12월31일 이전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도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가 되면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4.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도 적용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

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5.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는지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6.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7. 처남 및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처남이나 처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의 공제방법

대학에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수시모집 합격에 따라 올해 납부를 한 금액이라도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9. 초등학생 자녀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1.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12.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13.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지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공제 가능하며,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